‘물수능’ 지방수험생 울린다

“쉽게 출제” 변별력 논란 … 서울은 논술 열풍

학부모들 “학원 원정 가야 하나” 걱정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행된 6월 모의평가가 매우 쉽게 출제되면서 ‘물수능’이 예고돼 수도권 주요 대학에 진학하려는 광주·전남 수험생들의 상대적인 불이익이 우려된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이 변별력을 강화를 위해 논술고사의 비중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수험생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서울로 원정 논술과외에 나설 경우 부모들은 사교육비로 허리가 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치른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 수리 · 외국어에서 영역별 만점자가 1% 수준(올 수험생 70여만 명 기준으로 7000여 명)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6월 EBS 수능교재와의 영역별 연계율은 언어 74%, 수리가 · 나형 70%, 외국어 70%로 전반적으로 70% 수준을 웃돌았다.

이처럼 변별력이 떨어지는 물수능이 점쳐지자 유명 논술학원이 포진한 서울 강남구 학원가는 모의수능이 끝나자 마자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벌써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술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수험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최소 수강료 100만원을 웃도는 수도권 논술학원을 찾아야 할 형편이다. 벌써부터 방학 때 수도권 원정논술 준비를 하는 수험생도 있다.

올해 논술을 반영하는 대학이 41곳으로 줄었지만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주요대학은 정시·수시에서 논술고사를 보기 때문에 논술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논술을 반영해 신입생을 뽑는 비율은 연세대 38%, 고려대 37%, 서강대·한양대가 35%에 이른다.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 김모씨(55·광주시 남구 봉선동)는 “지역에는 입시 논술을 준비할 만한 전문학원은 물론 공교육 기관도 없어 방학 때 논술시험 준비를 위해 아이를 서울지역 논술학원에 보낼 계획”이라며 “벌써부터 학원비 걱정이 태산”이라고 푸념했다.

방학 중에 반짝 논술특강을 받는 것으로는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부모들의 또 다른 걱정이다.

또 최상위권은 물론이고 중상위권 수험생까지 수능과 논술 준비에 나서면서 ‘쉬운 수능’으로 학업량과 사교육을 줄이겠다던 정부의 당초 구상과 반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양모(19)양은 “수능이 쉽게 나온다니까 등급컷이 높아져 한 문제만 실수해도 밀릴 수 밖에 없어 부담이 크다. 수능 공부도 버거운데 논술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학사 입시분석실 김희동 실장은 “수도권 주요 대학의 경우 논술비중이 커지고 유명대학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여 지방 수험생들이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험생은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논술 기출문제 등으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주택 침입 잇단 성폭행

새벽 시간대 광주 방림동·산수동서

여름철이 되면서 광주에서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A(여·43)씨의 집에 복면을 쓴 괴한이 침입, 홀로 있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30대로 보이는 괴한은 자신의 손을 A씨가 깨무는 등 완강히 저항하자 범행에 실패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는 A씨의 진술과 주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 자료를 토대로 달아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가족없이 혼자 있던 시간을 택해 범행을 시도한 점을 들어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새벽 3시께에도 동구 산수동 한 주택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침입, 잠을 자려던 중학생 B(15)양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B양은 당시 방에 홀로 있었다.

B양은 경찰에서 “컴퓨터를 하고 막 잠에 드려는 찰나에 남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양의 방 안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를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성추행 사건도 잇따라

찜질방·버스정류장서 30대 둘 체포

대중이용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 대담한 수법으로 여성들을 성추행한 30대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6일 찜질방에서 잠이 든 여성의 신체를 손으로 더듬은 염모(38)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 5일 오전 8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L(여·23)씨의 가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준강제추행 전과 6범인 염씨는 L씨가 술에 취해 잠든 점을 노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부경찰은 이날 도심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유모(3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10분께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중학생 K(15)양의 다리 등을 손으로 만진 혐의다. 유씨는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붐벼 혼잡한 틈을 타 K양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씨는 당시 버스터미널에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근무중이던 광주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33)경장에게 성추행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인계됐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도 등록금 투쟁 불붙나

광주·전남대학생연합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관철을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생들과 공동대응키로 했다.

21C 광주·전남대학생연합은 7일 오후 7시 광주시 금남로 옛 삼복서점 앞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광주·전남 대학생 촛불집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촛불문화제에서는 ‘반값 등록금 불이행’ 현 정부 규탄, 취업후학자금상환제 개선 주장과 함께 노래공연 등 각종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 최근 서울에서 있었던 반값등록금 집회시 대학생 연행 장면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반값 등록금 공약 영상 상영, 시민의견 붙이기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촛불집회는 10일까지 이어지며, 마지막날인 10일에는 동맹휴업 등 대규모 행동이 계획돼 있다.

21C 광주·전남대학생연합 관계자는 “이번에 불거진 반값 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재정 확보, 교육시장화 정책 철회,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공동행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기차마을에 활짝 핀 300만송이 장미

6일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농원에 300만송이의 장미가 활짝 핀 가운데 관광객들이 꽃 향기를 맡으며 농원을 둘러보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장미축제도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훈련중 난청 장교 유공자 불인정은 위법”

광주지법 판결

이라크 파병 당시 민사작전 연습 등 소음에 노출돼 난청 증상을 얻은 장교에 대해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경현)는 6일 박모(35)씨가 광주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군 복무 기간 기계화부대 훈련 폭발음이나 사격 훈련 소음, 이라크 파병준비 기간 민사작전(사물놀이) 연습 등으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됐다”며 “박씨가 군 복무 기간 난청 증상이 심해진 것은 이런 영향인 것으로 보이고 이 밖에 난청을 일으킬 만한 소음에 노출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1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아 육군 3사관학교에서 장교로 임용, 2000년 12월 처음으로 난청 증상을 보였으며 2004년 4월 이라크 파병준비 기간 민사작전의 하나인 사물놀이 연습 중 난청, 이명 등의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의병전역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차량 뒷좌석서 성폭행 발생때

운전석 동승자도 강간죄 인정

서울고법 판결

운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운전석의 동승자에게도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2009년 12월 이모(35)씨는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형님’으로 모시는 하모씨와 함께 서울 강남 유흥주점을 찾았다. 이들은 빨리 술자리를 마치고 하씨가 여종업원 A(27)씨에게 속칭 ‘2차’를 요구했지만 다른 손님을 접대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씨는 폭언과 욕설을 계속했고 겁에 질린 A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시키고 질주했다. 하씨는 결국 승용차 안에서 A씨를 성폭행했고 A씨의 고소로 특수강간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문제는 자신은 운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씨의 특수강간죄 성립 여부. 1심은 감금은 인정했지만, 합동으로 강간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가 하씨의 강간 행위와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하씨가 유흥주점에 올 때부터 피해자와 2차를 노골적으로 원했던 점에 비춰 피고인은 하씨가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면 불과 1m 정도 앞자리에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이 이를 전혀 인식조차 못 했을 거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 추행범 어딨어”

파출소 흉기 난동 20대 검거

파출소에서 ‘애인을 성추행한 남자의 이름을 알려달라’며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피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6일 새벽에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모(25·광주시 북구 삼각동)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새벽 5시2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파출소에서 정모(33)순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고씨의 여자 친구 B씨는 이날 새벽 4시께 광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곧바로 고씨에게 전화로 연락했다. 고씨는 B씨의 전화를 받은 뒤 파출소에 찾아와 정 순경에게 “여자친구를 추행한 웨이터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가출 고교생 친구집서 귀금속 슬쩍

쌍나팔

○…가출해 생활하던 고교생이 자신을 초대한 친구의 집에서 친구 어머니의 귀금속을 털었다가 경찰서행.

○…6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고교생 김모(15)군은 지난달 9일 낮 12시3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 친구 강모(15)군의 집 안방에서 금목걸이 1개 등 200만원 상당을 훔쳐갔다는 것.

○…강군 어머니의 귀금속을 훔친 뒤 이를 팔아 용돈으로 사용한 김군은 강군으로부터 “얼마 전 친구가 집에 다녀갔는데 의심스럽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사에 덜미.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급 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 9급 종합반 | 법원서기보 | 9급 소방직(전문) | 명품 "강력단과" | 7·9급 검찰직 | 9급 야간반 | 농업직/기술직
합격도 전략이 필요하다!
공무원 합격설명회
당일접수자 수강료 20% 교재 30%할인!
'11년 6월 22일(수) 14:30
최근 5년간 기출문제 + 고급노트증정
종합반 교재5권 20만원 상당 무료추첨 10명
영어/한국사 교재 2권 무료추첨 10명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